

책임지는 인생

Assuming Responsibility of Life

마태복음 25:14-3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1월 10일 설교

¹⁴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¹⁵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¹⁶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¹⁷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¹⁸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¹⁹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²⁰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²¹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²²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²³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²⁴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²⁵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²⁶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²⁷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 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²⁸“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²⁹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³⁰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하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삶

예수 믿는 삶은 기다림입니다. 낭만적이지요? 뭘 기다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에 대해 주님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더디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두고 하신 말씀은 더디 오신다는 쪽입니다. 늦어질 것이다 또는 언제인지 모른다 하는 말씀이지요. 속히 오겠다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재림의 확실성이지요.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문구가 있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옥십육 권 끝에 있는 결론입니다. 이걸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입니다 (계 22:20; 고전 16:22). 아멘입니까?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요. 그게 재림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사람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농부에 비깁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린 다음 가을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뭘 합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도 와야 되고 재해는 오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수고합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쓰러진 게 있으면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잘 해 주라 배웠는데 사람들이 묻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지난 주일 확인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깊은 잠에 빠지기 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 따라 돈을 맡기심

오늘 살필 비유는 구도부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상황에 꼭 맞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 밖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깁니다. 떠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들이겠지요.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삶은 곧 주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인계받은, 위탁받은, 그런 시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습시다.

달란트는 돈입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금 다섯 달란트 그랬는데 본문에 두 번 나오는 “돈”이라는 말이 원문이 “은”입니다. 그러니 은 달란트로 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므나의 비유에서는 “은”이라고 제대로 옮겼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재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맡기시는 기준은 뭡니까? 재능입니다. 개인의 능력입니다. 보통 달란트를 재능이라 하는데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맡기신 돈입니다. 능력에 따라 다르게 맡기시니까 주님도 능력 차이를 인정하시지요. 개인의 능력에다 환경까지 다 고려해 감당할 수 있을 액수를 맡기셨습니다.

빌 게이츠 때문에 유명해진 문구가 있지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따지지 마라.” (Life's not fair. Get used to it.)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 익숙해져라, 몸에 익혀라 그런 말이지요. 다들 명언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데, 그럼 불평도 못 합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사는 이게 다라면, 죽고 난 다음에 아무 것도 없다면, 불평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남 밟고 올라서서 땡땡거리는데 왜 누구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그 사람 뒤치다꺼리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한 세상 사는데 힘든 일은 또 왜 이리 많이 생깁니까? 불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삶이 다가 아니라면, 인생이 기다림이라면, 인생이 이 삶 다음에 오는 영원으로 가는 길목, 영원으로 가는 통로라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재능 따라 돈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 따라 맡기시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십니다. 남보다 불리한 조건이 영원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종이 한 일

주인은 돈을 맡기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으로 다 압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돈은 가능성이지요. 힘입니다. 돈으로 음식을 사 먹고 삽니다. 돈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걸로 밑천을 삼아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돈을 낳게 되겠지요?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능력이 돈에는 있습니다. 조건은 꼭 한 가지. 사람이 활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두면 찌그러듭니다. 활용하면 덩치가 커지지만 가만 두면 줄어드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런 돈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종이 셋 나옵니다.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은 즉각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서” 그랬는데 “곧바로 두루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돈으로 여기서 물건을 구입해 먼 곳에 가서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거기 물건을 사 여기서 또 비싸게 팔고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 다섯 달란트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벌었습니다. 돈이 두 배가 된 거지요.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이 했습니다. 주님이 간단히 똑같이 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과 똑같이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우리말로는 “가서” 하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두루 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떠났다는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 종과 다른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길을 갔습니까?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어이쿠! 은화니까 땅에 묻어도 썩지는 않겠지요. 몰래 묻었으니 도둑맞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가치는 줄어듭니다. 보관을 잘 하면 할수록 값어치가 줄어듭니다.

주인이 종들과 결산함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받은 달란트로 장사해 돈을 벌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도 하는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잘 했다면서 칭찬하는데 종의 성품부터 칭찬합니다. “착한 종이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되었으니 주인의 돈으로 열심히 애를 썼겠지요. 그런 다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고 칭찬합니다. 수고를 엄청 했는데 “적은 일”이라 하시니 좀 서운한 생각이 들려 하는 찰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하십니다. 아이고, 이 엄청난 걸 적은 일이라 하시니 많은 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은 칭찬도 아주 고단수로 하십니다. 그런 다음 “네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 하십니다.

많은 걸 맡기겠다 하시는 말씀은 벌어들인 것까지 합쳐서 이번에는 열 달란트를 맡기겠다는 뜻 같기도 하고 다른 큰 일을 맡기겠다는 뜻도 됩니다만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주인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

까? 돈이 생겨 즐겁습니다.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아 이 종이 열심히 일을 해 두 배로 불러 놓았습니다.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눕니다. 내가 번 돈이니 너 가져라 그런 뜻처럼 들립니다. 돈이 생겨 기분이 좋은데 그걸 종한테 다 주면 주인은 뭐가 즐겁습니까? 주인은 더 좋은 걸 얻었지요. 충성된 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종에게 돈 다 줘도 안 아깝습니다. 주인은 훌륭한 종을 두어 기쁘고 종은 주인에게 신임도 받고 돈까지 받아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즐거움을 나눕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 차례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종이 보고하는 내용이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하고 똑같습니다. 다섯하고 둘의 차이만 빼면 글자 하나 안 빼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장사를 했다 할 때는 그냥 똑같이 했다 하시더니 결산 때 보고하고 칭찬하시는 부분은 내용을 하나하나 그대로 되풀이하십니다. 상장을 여러 사람 받을 때는 한 사람만 읽어주고 나머지는 “이하동문”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상장을 다 읽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남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받은 만큼 남기면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어 고생 실컷 하는 것보다 집에 들어 밥 한 번 먹여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같은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적게 타고난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한 일이 다르니 결산도 달라야지요. 우선 주인에게 설명부터 합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흔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는 엄격한 분인 줄 알고 겁이 나서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기 주인님 것을 받으시지요.” 심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는 데서 수확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심는다고 다 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씨를 흔뿌리면 그 가운데 얼마나 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사불여튼튼. 만의 하나 장사를 하다가 원금을 까먹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지요. 그래서 돈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시 파 갖고 와 주인에게 내밉니다.

주인이 혼부터 냅니다. “못된 종아,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인 건 쉽게 알 수 있지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돈을 땅에 묻었다가 파낸 것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왜 못된 종입니까? 이 종은 지금 변명하는 척 하면서 주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손해가 나면 못 참는 그런 주인, 제 이익 하나만 챙기는 그런 못된 주인으로 만든 겁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종들에게 돈을 맡기긴 왜 맡겼겠습니까? 종들에게 맡길 때는 장사해 남길 수도 있지만 혹 잘못돼 손해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제 게으름은 슬쩍 덮고 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게다가 이 종이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인이 지적하지요?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왜 이자 주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주인이 정말로 한 푼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은행에 넣든지 아니면 CD를 사든지 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건 왜 안 했느냐 하는 꾸지람입니다. 주인이 오랜 뒤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자를 받았다면 상당한 액수가 되었을 겁니다. 복리이자라면 원금보다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 핑계고 거짓말입니다. 못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근본 문제는 주인의 뜻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인 뜻은 무시하고 제 뜻대로만 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 받은 달란트에다 장사해 남긴 것까지 갖고 왔지만 주인에게 돌려주지는 않았습다. 그냥 갖고 있었습다. 맡긴 분이 주인입니다. 그 분이 달라 할 때 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서둘러 주인에게 내밉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얼른 책임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이거 주인님 겁니다” 하고 강조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거니까 관리자로서 책임감이 참 강한 것 같지요? 거꾸로입니다. 주님이 쓰신 낱말 원문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다른 두 종은 달란트를 “받았다” 해서 수동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이 종은 달란트를 “취했다” 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처음 두 종은 주인 것인 줄 알았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책임감을 갖고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종은 제 것인 양 취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보다 제 이익을 더 생각했습니다.

참 역설이지요. 주님의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나에게 맡기신 뜻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활용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것이라 말은 하면서도 저만 챙기는 사람은 주님의 뜻보다는 제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보다 그냥 묻어두고 신나게 놀다. 손해 볼 걱정 없다고 신나게 놀지만 주님이 맡기신 돈을 썩혀두는

그게 바로 주님에게 손해를 끼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르침 1: 재능대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장배경도 다릅니다. 머리카락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각자가 맞이하는 환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합니까? 세상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영원으로 가는 준비 단계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길이라는 걸 알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대로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능력대로 맡기시고 능력대로 기대하십시오.

능력 갖고 불평들 합니다. 얼굴부터 보세요. 잘 생긴 사람 덜 생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이 있지요. 타고난 것도 많고 살면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도 덜 가졌다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재능대로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눅 12:48).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백 미터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는 왜 저렇게 오래 달리게 두고 난 조금밖에 못 뛰게 하느냐 하고 불평하는 격이겠지요. 뒤집어서 마라톤 선수가 백 미터 선수 보고 재는 조금만 뛰고 금메달 따는데 난 왜 이리 오래 고생을 해야 되느냐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른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맡기십니다. 그리고 맡기신 만큼 달라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침 2: 장사하여

두 번째 가르침은 책임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셨습니다. 쉽게 말해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달란트를 맡겼다 했는데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할 때 쓴 말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전적으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인 뜻은 장사해 돈을 남기는 겁니다.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얼른 가서 장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장사해 남을 수도 있겠지요. 손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땅에 파 묻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떼먹어도 좋습니다. 뭘 어떻게 하든 내가 책임을 집니다.

땅에 묻는 것은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책임회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주님한테 다시 떠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도 하고 판단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토론도 하면서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아내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 자라야 됩니다. 젓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미신 믿듯이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일을 놓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도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세요, 제가 미니미니마니모 하고 고르는 게 하나님 뜻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고, 바른 정보를 잘 수집하게 해 주시고,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판단한 걸 그대로 잘 순종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장사하듯 그것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가르침 3: 빈익빈 부익부

세 번째 교훈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데 충성하면 할수록 덩치가 커집니다. 안 하면 알량한 하나마저 빼앗깁니다. 땅에 묻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열 달란트를 가졌다 하셨으니까 처음 주신 다섯 달란트에다 장사해 남긴 다섯 달란트까지 열 개를 그대로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 있는 자고 누가 없는 자입니까?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받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책임 있게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 남기니까 많아지고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맡기시니 더욱 많아 집니다. 없는 사람은요? 받아 놓고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주

님과 결산을 할 때 빼앗깁니다. 주님이 다시 받아 가십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힘이 있어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맡기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액수가 작다고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받은 줄 모르면 빼앗깁니다. 한 달란트라도 주신 줄 알고 책임 있게 활용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상장도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또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 하나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내가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활용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도 다하여 주님 뜻을 이루기를 바라신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이 가질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 말 한 마디도 가려서 하고,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예 머리에 남지 않도록 조심하고, 행동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달란트를 숨겨 두었던 종은 마지막에 쫓겨나는 벌을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밤새 벌벌 떨면서 고생 좀 하고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지난 주에 살핀 열 처녀 비유에서 문이 닫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최후의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삶이 유일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뒷짐 지고 먼 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활용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습니다. 능력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든 일도 많이 겪지요.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안 하시니 오히려 감사하지요.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서로 비교하고 어깨 힘 주고 남 기죽이는 그런 세상 생각을 얼른 벗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 우리 많이들 남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묻겠지요. 누구 돈이요? 내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열심히 하오? 그렇게 물을 때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권수경)